

## 회의의사록

회의제목	2017년 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		회의장소	복음관 회의실
회의일시	2017. 1. 10 오전 10시30분		담당부서	대학평의원회
기록일시	2017. 1. 10		기록자	최지은
회의자료	2016년도 추경 및 2017년도 예산 자문 자료			
참석자 서명란	박종걸(본인)	원영희(본인)	김정원(본인)	김성경(본인)
	임지영(본인)	김중원(본인)	강혜민(본인)	최지은(본인)
	최영민(본인)	이재록(본인)	홍성호(본인)	
	<p>박종걸 의장의 주재로 총 의원 11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의결 종족수가 되므로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. 다같이 383장 찬송을 부른 후 원영희 의원이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안건 토의</li> </ul> <p>박종걸 의장의 주재로 2016년도 추경 및 2017년도 예산 자문 토의를 진행하다. 김인화 기획팀장이 배부된 회의자료에 근거하여 안건에 대해 설명하다.</p> <p>- 2016학년도 추경예산안 자문</p> <p>&lt;수입 부분&gt;</p> <p>박종걸 의장: 평생교육원 수입이 증가하여 학교 수익 증대에 많은 역할을 하는 듯하다. 하지만 직원들의 노고가 너무 크고 평생교육원의 수입 증가가 계속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. 특히 인력보강이 필요할 듯하다.</p> <p>김인화 팀장: 평생교육원의 인력 보강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다. 특히 현재 학교 재정에서는 평생교육원의 수입이 중요하므로 학교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.</p> <p>박종걸 의장: 기부금 증가가 가능한가?</p> <p>김인화 팀장: 대외협력팀에 기부금 모금의 초과 목표를 요청했었다. 다행히 초과 달성하였다.</p> <p>강혜민 의원: 대외협력팀에서는 작년 기부금 초과목표를 요청받아 쉽지 않았지만 달성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.</p> <p>김성경 의원: 국가장학금 2유형 현황은 어떤가?</p> <p>김인화 팀장: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2유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. 하지만 여러 여건(성적 등)으로 장</p>			

## 회의의사록

회의제목	2017년 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	회의장소	복음관 회의실
회의일시	2017. 1. 10 오전 10시30분	담당부서	대학평의원회
기록일시	2017. 1. 10	기록자	최지은
회의자료	2016년도 추경 및 2017년도 예산 자문 자료		
	<p>학재단의 국가장학금 2유형이 남고 있어 계속 갈 것인지에 대해 교육부 자체적으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.</p> <p>박종걸 의장이 다른 추가 의견이 있는지 질문하고 없음을 확인한 후 2016년 추경 예산안 수입부분에 관해 동의와 제청을 구하다. 이에 원영희 의원의 동의, 김성경 의원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으로 통과하다.</p> <p>&lt;지출 부분&gt;</p> <p>김성경 의원: 차입금 상환 부분이 수입과 지출이 차이가 있다. 무엇인가?</p> <p>김인화 팀장: 차입금 상환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등록금 회계에서 비등록금 회계로 변경하여 생긴 것으로 실제적인 것은 아니다.</p> <p>김성경 의원: 평생교육원은 수입과 지출(장비, 시설 설치등) 대비 적절한가?</p> <p>김인화 팀장: 평생교육원은 올해 구축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지출이 많았으나 내년부터는 구축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지출대비 수입이 더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. 그리고 평생교육원의 수입은 예년보다 많이 증가한 상태이다.</p> <p>박종걸 의장이 다른 추가 의견이 있는지 질문하고 없음을 확인한 후 2016년 추경 예산안 지출부분에 관해 동의와 제청을 구하다. 이에 김중완 의원의 동의, 강혜민 의원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으로 통과하다.</p> <p>- 2017학년도 자금예산안 자문</p> <p>&lt;수입 부분&gt;</p> <p>최영민 의원: 예산을 보면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데 타학교에 비해 어떤가?</p> <p>김인화 팀장: 우리 학교의 등록금 의존율은 57% 정도이다. 일반 사립대학의 평균 보다 약간 낮은 편이다. 현재 입학생의 감소는 없으나, 재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어려움 있다.</p> <p>최영민 의원: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?</p> <p>김인화 팀장: 현재 우리는 재학생 수가 감소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. 이를 위해 전공교수님들이 학생 관리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,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고 국가 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있도록 유</p>		

## 회의의사록

회의제목	2017년 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	회의장소	복음관 회의실
회의일시	2017. 1. 10 오전 10시30분	담당부서	대학평의원회
기록일시	2017. 1. 10	기록자	최지은
회의자료	2016년도 추경 및 2017년도 예산 자문 자료		
	<p>도하고 있다. 사실 기부금도 한계가 있고 수익 사업에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.</p> <p>최영민 의원: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원의 수입 증가가 있어 다행이지만 평생교육원의 수입이 보장되는 것인가?</p> <p>김인화 팀장: 평생교육원 뿐 아니라 학교 내 수익은 한계가 있다.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. 2016년도에 승인되지 않은 일부 사업에 대해 2017년에는 외부 위탁을 주지 않고 학교에서 직접 유치할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.</p> <p>박종걸 의장: 중도탈락률이 높은데 성서학이 높은 것인가?</p> <p>김인화 팀장: 중도탈락률은 단순한 학생수로 보면 성서학이 높고 비율로 보면 컴퓨터소프트웨어학이 높다.</p> <p>최영민 의원: 경쟁률은 어떤가? 성서학의 경쟁률은 대학평가에 어려움이 되는가?</p> <p>김인화 팀장: 우리 학교의 성서학은 타대학의 유사학과 비교하면 학생수가 많은 편이다. 하지만 학과를 비교해 볼 때 잘 운영되고 있다.</p> <p>최영민 의원: 장학기금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?</p> <p>김인화 팀장: 장학기금은 임의기금으로 이로 인한 제약은 없다. 하지만 이는 적립 금에 해당하므로 학교 운영에 여유가 없게 된다. 이를 위해 올해 결산 상황을 보면서 적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다.</p> <p>최영민 의원: 대학원 현황은 어떤가?</p> <p>김인화 팀장: 대학원은 안정을 찾아 입학 및 재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.</p> <p>박종걸 의장이 다른 추가 의견이 있는지 질문하고 없음을 확인한 후 20167년 자금예산안 수입부분에 관해 동의와 제청을 구하다. 김중완 의원의 동의, 원영희 의원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으로 통과하다.</p> <p>&lt;지출 부분&gt;</p> <p>김성경 의원: 시간강의료가 작년과 차이가 있다.</p> <p>김인화 팀장: 시간강사료는 올해의 경우 평생교육원 시간강의료를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였다.</p> <p>박종걸 의장: 임금 동결이 몇 년동안 되는 듯한데, 인상은 가능한가?</p> <p>김인화 팀장: 임금은 3년째 동결이다. 올 해 차입금 상환이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가 희망을 품고 있다.</p> <p>김중완, 강혜민 의원: 차입금상환은 작년대비 어떠한가?</p> <p>김인화 팀장: 차입금상환은 올해가 가장 많으며 내년부터는 줄어든다.</p>		

## 회의의사록

회의제목	2017년 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	회의장소	복음관 회의실
회의일시	2017. 1. 10 오전 10시30분	담당부서	대학평의원회
기록일시	2017. 1. 10	기록자	최지은
회의자료	2016년도 추경 및 2017년도 예산 자문 자료		
<p>김성경 의원: 수입 지출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.</p> <p>김인화 팀장: 2016년부터 이미 지출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이기는 힘들다. 수입을 증가해야 할 상황이다. 수입 편성이 현실적이지는 않으나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기로 했다.</p> <p>최영민 의원: 수익 사업도 중요하지만 학생유치가 가장 중요하다. 이를 위해 노력하는가?</p> <p>김인화 팀장: 특히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. 재정 여건상 홍보비 증가가 어렵다. 대외협력팀에서 기부를 통해 중계역명 병기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. 또한 잘 가르쳐서 좋은 학생을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가장 큰 홍보라는 총장님의 뜻도 있어서 잘 가르치는 데도 중심을 두고 있다.</p> <p>김중완 의원: 교내 장학금이 전년대비 증가하였는데 어떤 이유이며, 계속 유지하는 것이 괜찮은가?</p> <p>김인화 팀장: 교내 장학금은 구조개혁 평가 등을 대비하여 증가는 필요하다. 하지만 자금집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.</p> <p>박종걸 의장이 다른 추가 의견이 있는지 질문하고 없음을 확인한 후 2017년 자금 예산안 지출부분에 관해 동의와 제청을 구하다. 2017년 자금예산안 지출에 대해 강혜민 의원의 동의, 김성경 의원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으로 폐회를 선언하다.</p> <p>&lt;박종걸 의장 총평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요한 자리에 기획실장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.</li> <li>- 학교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언제까지 구성원들이 참아야만 하는가? 이런 부분들이 아쉽고 안타깝다.</li> </ul> <p>김중완 의원의 기도로 회의를 마치니 오전 12시가 되다.</p>			
주요결정 사항			